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9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원전수출진흥과 채규남 과장(2110-3961), 최태준 사무관(2110-3962)

## 「원전산업 로드쇼 개최」로 원전 세일즈 외교 박차

□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 중인 9.8~9.9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하노이 그랜드프라자 호텔에서 “한국 원전 산업 로드쇼”를 개최하였음.

○ 로드쇼에서는 한국 원전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베트남 원전 건설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고, 베트남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기자재 현지화 등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하는 세미나를 진행함

□ 9.8일 베트남 경제부총리 및 양국 정부,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홍보 부스를 방문하여 베트남 제3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6월 이후 양국이 진행중인 베트남 원전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후 국회 승인 등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어 한국이 베트남 제3원전 건설을 담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베트남 정부는 제3원전 건설을 정부간 수의계약형태로 추진중

☞ 한국은 ‘13.6월부터 제3원전에 대한「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14년말까지 원전 건설 부지,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 베트남 국회승인을 받으면 베트남 원전의 수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금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과 함께 추진된 “원전산업 로드쇼”는 베트남 원전건설 사업에 대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 박근혜 정부의 세일즈 외교의 높은 성과로서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제3원전 수주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최태준 사무관 (☎ 02-2110-39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